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44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5월 9일 (음력 4월 12일) 화요일

대한민국은 아기를 원한다

출산율 1.08명 세계 최저…미국의 절반 수준

2005년 주요국가 출산율

(단위:명)

홍 콩	0.95
한 국	1.08
체 코	1.23
일 본	1.29
이탈리아	1.33
독 일	1.37
영 국	1.74
프랑스	1.90
미 국	2.05

자료:통계청

출산기피 현상으로 우리나라 부부 1쌍이 갖는 아이가 1명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05년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의 출산 신고자료를 기초로 추정, 8일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1.16명에 비해 0.08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관련기사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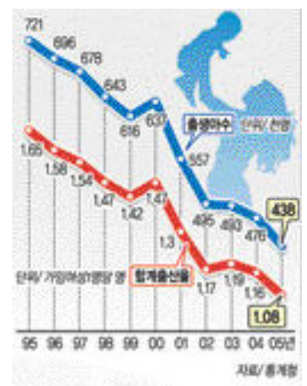
이 합계출산율은 유엔인구기금 기준 지난해 전세계 평균인 2.6명과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홍콩(0.95명)의 출산율에 육박할 정도다.

한국은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계출산율인 2.1명을 지난 1983년(2.08명) 뚫고 내려왔으며 그 이후에도 급감을 거듭해 이제는 부부 1쌍이 아이 1명 밖에 갖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반면 미국은 2004년 2.05명을 기록하는 등 2000년대 들어서도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1.90명, 영국은 1.74명 등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출생아수는 43만8천명으로 전년의 47만6천명보다 7.9%인 3만8천명이 줄어 사상 최저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작년 출생아수는 10년 전인 1995년 72만1천명에 비해서는 39.3%, 28만3천명이 줄어든 것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합계출산율·출생아수 추이



社告

"스승의 은혜에 감사" 무료로 '일본여행' 보내드립니다

광주일보·대주건설 공동

광주일보사와 대주건설이 공동으로 스승의 날을 맞아 이 지역 교사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일본 속 우리문화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규슈지방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그 것입니다.

규슈지방은 지금껏 한국 고대사의 흔적이 뚜렷이 배어있는 한·일 고대 교류사의 생생한 역사현장입니다.

탐방단의 여행 경비는 '대주피오레'라는 새 이름으로 친환경적 아파트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주건설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부담해 주었습니다.

참가 대상은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추천한 초·중등 교사 45명이며 참가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광주일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교사들에게 이와같은 혜택을 드릴 계획입니다.

광주·전남 교사 45명…규슈 역사문화 탐방

- 행사기간 : 2006년 5월 24일~27일(3박4일)
- 탐방코스 : 광주~부산~후쿠오카(마한 유적지 요시노가리·후나야마 고분)~구마모토~아소산~벳부(유노하나·바다지옥·다카사키 원숭이공원·지열발전소·고마츠지옥)~후쿠오카(태재부천만궁)~부산~광주
- 주 관 : (주)조이트래블
- 문 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062-2200-541)

光州日報社·光州建設株式會社

The Living Ocean and Coast〈살아있는 바다와 연안〉

여수 세계박람회 영문주제 확정

19일 BIE에 유치 신청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영문 주제가 'The Living Ocean and Coast'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는 오는 19일 여수박람회 유치 신청을 앞두고 박람회의 정신을 관통할 주제를 'The Living Ocean and Coast'(가칭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영문 주제를 설명할 문구로는 'Resource Diversity and Sustainable Activities'(가칭 '다양한 자원과 지속가능한 활동')가 채택됐다고 덧붙였다.

해수부와 전남도는 오는 19일 프랑스에 있는 BIE(세계박람회기구)에 제출할 박람회 유치신청서에 이 같은 영문 주제를 표기할 방침이며, 주제를 한글로 번역한 가칭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은 앞으로 전문가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여수 박람회와 같은 인정박람회의 주제는 일반 상업박람회와는 달리 인류를 계몽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2012년 여수박람회의 모든 전시는 주제로 채택된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에 담긴 정신을 포함하게 된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는 오는 2007년 상반기 BIE의 현지실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98개 박람회 회원국의 비밀투표를 통해 유치 여부가 결정된다. 유치가 성사될 경우 여수 신항지구 7만5천여 평의 전시장에서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에 걸쳐 박람회가 열리게 되며, 700만 명 안팎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

함평서 공룡시대 곤충화석 무더기 발견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소장 허민)가 8일 공개한 함평 학교면 일대 중생대 백악기 흑색 셰일(Shale· 이판암) 층의 딱정벌레(사진 왼쪽)와 고둥의 일종인 연체동물복족류 화석. 이 일대에서는 개형충미 화석, 연체동물 화석, 식물 화석 등 100여점의 화석이 발견됐다.〈관련기사 9면〉 전남대 공룡연구센터 제공

환율 930원도 무너졌다

1달러=927.9원…8년7개월만에 최저치

원·달러 환율이 반년만에 최대폭으로 급락하며 결국 920원대로 떨어졌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주말보다 달러당 11.70원 폭락한 927.9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997년 10월23일 921.00원 이후 최저수준으로 근 8년7개월만에 920원대로 떨어졌다. 전거래일대비 하락폭은 지난해 10월26일 12.50원 이후 6개월여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관련기사 11면〉

이날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4.80원 하락한 934.8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역외매도 증가로 930원 아래로 떨어진 뒤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후 환율은 930원 부근에서 공방을 벌인 뒤 기업들이 매물을 쏟아내며 은행권 손절매도가 촉발되자 927.30원까지 저점을 낮췄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미 금리인상 종결 가능성 확대로 달러 약세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엔·달러는 7개월 만에 최저수준인 111엔대로 폭락하며 원·달러 동반 급락을 초래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일보·KBC광주방송 공동 주최

5·31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 토론회

오늘 오후 6시 KBC 생중계 ▶관련기사 4면

'광주일보 은펜상' 2006년 4월 수상자 김병인 씨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중 매월 최우수작품을 선정, 시상하는 '광주일보 은펜상' 2006년 4월 수상자로 김병인(45·서강정보대 관광경영과 교수)씨가 선정됐습니다.

김 교수는 4월7일자 '전략공천 그들만의 잔치인가' 기고문을 통해 정당의 전략 공천이 원칙·상식·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시민 참여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김 교수에게는 부상으로 광주일보 마크가 새겨진 은촉 만년필을 드립니다.